

# 당근과 손잡고, 구도심 활성화

## 익산시, 중앙동 상권 일대 총 10억원 예산 투입 불거리·즐길거리 마련

익산시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구 당근마켓)'과 협업해 중앙동 구도심 경제 활력을 이끈다.

행정안전부와 '당근'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슬세권'이라는 표현처럼 동네를 중심으로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해, 중앙동 일대 편의시설 조성 및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해 구도심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동 일대를 당근의 '동네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당근 플랫폼에서 주민 아이디어 수렴 및 투표 사업 홍보 가능 등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증대시킬 전략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년간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내 스크린포츠 테마존 설치 △청년몰 지하 미니어저 포토존 조성 △젊음의 거리 일부 휴게 벤치 및 스트리트 퍼니처를 조성하여 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불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있는 행사도 기획한다. △봄에는 문화의 거리 내 공방 및 청년몰 공방과 연계한 체험형 플라마켓 △여름에는 청년몰을 중심으로 한 야시장 △가을에는 지역 대표 치킨&맥

주 브랜드 및 치킨 로드와 연계한 치맥 축제 △겨울에는 익산역 앞에서 즐기는 겨울간식 및 불명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자원들이 하나로 엮여지고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구도심 주민들의 편의와 더불어 익산시민 및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익산역 주변 구도심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근(구 당근마켓)은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층 성인 대상포진 무료접종

## 오임선 익산시의회 의원, "3년 만에 결실 이뤄 뜻깊어"

내년부터 익산시는 관내 거주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포함한 2024년도 본예산안이 가결되자,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그 의미가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병하며 발진·수포 등을 동반한 극심한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고령자는 치료 후에도 합병증이 남을 수 있으며 연령을 막론하고 뇌를 비롯한 인체 내 어느 곳에도 발병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이다.

오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예방접종률이 유독 낮았다. 국가지원 비대상이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이에 의원발의를 통해 2020년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끊임없이 예산확보를 건의해왔으며 드디어 3년 만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24년 만 60세 ~ 만 69세, 2025년 만 70세 ~ 만 79세, 2026년 만 80세 이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사회서비스형 선도 노인일자리사업 앞장서

군산시는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에 앞장섰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은 지역현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인맞춤형 일자리로 월 60시간, 5개월 이상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채용할 경우 1인 최대 160만원(국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난 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체결 후 7개 부서, 48명의 어르신들을 채용하여 지역의 환경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으로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7,500여명의 국비지원금을 받게돼 군산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내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경희사이버대 인제 양성 협약 체결

군산시는 21일 경희사이버대학(총장 변창구)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유가적 협조체제를 공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식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과 경희사이버대학원에 입학하는 소수 직원 및 시민들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30%의 등록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며 이는 내년 1학기 원서 접수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학교에 편입학하는 학생은 다른 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그대로 인정된다.

협약서에는 △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자격 △선발과 입학 △임직원의 교수 요원 활동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군산시와 학교 간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2023년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 개최

## 다수의 전문가 초청, 관할구역 결정 관련 법률적 의견 수렴

군산시는 21일 군산대학교 노관순홀에서 2023년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을 개최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심도깊은 토론회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한 변호사가 발표한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군산시는 판단자의 입장을 고려한 군산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관할구

역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정립했다.

강원대학교 유수정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원광대학교 심용재 교수,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참여하여, 합리적

인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값진 자리가 되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하여, 향후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주얼리 산업 활성화·선진화 포럼' 개최

익산시는 21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익산시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주관으로 '제3회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주얼리 산업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얼리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前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주얼리 글로벌 제조 산업의 신성장점을 위한 미래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주얼리 산업 발전전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얼리 산업 발전전략으로는 △국내외 주얼리 시장 동향과 전망 △주얼리 청년 창업 육성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브랜딩 강화 전략 등이 발표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역기술통계 대응, 청년 창업 육성, 브랜드 강화 등

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국 주얼리 산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주얼리 글로벌 제조산업의 신성장점을 위해 고민하는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익산이 대한민국 대표 보석도시로서 K-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연구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익산시 주얼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공유된 주얼리 산업 발전방안을 기반으로 글로벌 주얼리 산업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가 운영하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지난 5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4억 원 규모의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시민역사박물관 조성 본격 추진

익산시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익산의 추여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익산시민역사박물관을 조성한다.

익산시민역사박물관은 구)익옥수리 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들을 토대로 기록물 전시관 수장고 MR체험관, 교육복합문화공간 포토존 등을 제공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전 부서간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민간기

록관리위원, 공공건축가,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 시행사인 (주)파이포의 시민역사박물관 전시 조성 계획 발표·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역사박물관은 2021년부터 익산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수집·기증된 6천여점의 기록물을 익산의 변천사, 생활사 등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주제로 선보인다.

1층은 상설전시장과 보이는 수장고 및 미디어 뮤지엄과 아카이브를 통해 꾸며질 예정이며, 2층은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장·기획 전시실 등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3층인 지붕은 1930년 건축물의 흔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를 보존 및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익옥수리조합의 창고는 MR체험관 경비실은 포토존 기록공간 등으로 탈바꿈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록관인 동시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록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